연대하고 나누며 항쟁하다


성연 스님


박행삼 교사

사진제공=5.18기념재단

성연 스님 시민군 지원… 불교운동에 투신
박행삼 교사 해남서 차량 지휘하며 광주로

각 스님을 계엄 당국은 '폭도'로 분류해 1981년 1월 강제 퇴원시켰다. 반신불수가 된 진각 스님은 사찰로 돌아가지 못했다. 결국 속퇴하고 결혼을 하고 속인 이광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

하지만 스님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반신불수의 고통과 경찰의 탄압에도 진각 스님은 1982년 8월 5.18부상자회를 결성하고 총무를 맡아 5.18 진상규명과 부상자 치료 · 보상, 군부독재 타도를 외쳤다. 1988년 5.18부상자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던 진각 스님은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의 광주 청문회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군을 폭로하고 전두환 · 노태우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진각 스님의 도반 성연 스님(당시 28세)에게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당시 광주 증심사 총무 소임을 맡고 있던 성연 스님은 5월 19일 진각 스님과 함께 봉축행사 준비를 위해 시내에 나갔다가 계엄군의 폭압을 보고 시위에 가담하게 된다.

계엄군의 탄압으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정상적으로 봉행할 수 없게 되자 성연 스님은 5월 21일 증심사 신도회장단과 함께 법요식에서 나눠주려 했던 밥과 떡, 과일들을 리어카에 싣고 전남도청 옆 노동청 사거리에서 시위대에게 보시했다.

보시를 마치고 난 직후 계엄군은 금남로에 운집한 시민들에게 집단발포를 했으며, 성연 스님과 신도들은 전남대 병원으로 이동했다. 계엄군의 총격으로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병원 간호사들은 헌혈을 호소했고, 그 자리에서 성연 스님과 신도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헌혈에 동참했다.

시위대의 상황이 어려워져 가던 5월 26일 시민궐기대회에 참여한 성연 스님은 가사 장삼을 갖추고 도청 앞 광장 분수대에 올라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워 이겨내자"고 연설했다. 당시엔 계엄군 첩자가 암약하고 '독침사건'으로 흉흉한 분위기에서 종교인이 연단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성연 스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을 외친 것이다.

성연 스님은 항쟁을 위한 불교 조직을 구성하려고 했으나 5월 27일 계엄군이 도청을 침탈하면서 할 수 없이 광주를 떠나 부산으로 몸을 피신하게 됐다. 하지만 스님은 10.27법난이 발발하고 봉선사에서 군인들에게 포승에 묶여 끌려가다가 현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의 도움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이후 성연 스님은 불교계 민주화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성연 스님은 여익구, 서동석 등과 함께 1985년 민중불교연합(이하 민불련)을 창립하고 이념교육분과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하며,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에도 참여했다. 1986년 정토구현전국승가회가 창립되자 초대 사무국장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했다.

불자 교사와 학생들의 참여도 주목해야 한다. 광주 대동고 교사였던 박행삼 씨(당시 43세)는 원각사 불일학생회 지도교사로 항쟁 이전부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민족의식을 함양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

5월 19일 대동고 학생들이 시위에 가담하고자 교문을 나서려고 하자 학생들의 생명이 걱정됐던 박행삼 교사는 교문 앞에 누워 막았다. 이후 고향 해남으로 피신했던 박행삼 교사는 5월 21일 해남군청 앞에서 광주서 내려온 시위대 차량 위에 올라가 주민들에게 "광주에서 우리 형재, 아들, 딸들이 계엄군들에게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광주로 갑시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무장한 해남 시민군과 함께 트럭을 타고 광주로 향했고, 나주에 이르렀을 때 시민군의 트럭은 73대나 됐다. 시민군의 추대에 의해 차량을 지휘하게 된 박행삼 교사는 광주로 진격했으나 계엄군과 맞닥뜨려 협상 끝에 무장을 해제당했다.

이후 박행삼 교사는 광주로 끌려와 보안대와 서부경찰서의 혹독한 취조를 겪고 결국 교직에서 쫓겨났다. 훗날 교사에 복직하게 됐으며, 민주교사실천협의회 공동의장을 역임했다. 이밖에도 관음사 · 증심사의 불자들과 원각사 불일학생회, 덕일사 고등학생 불자들도 5.18민중항쟁에 적극 참여했다.


젊은 시민을 계엄군이 곤봉으로 내려치고 있다. 사진제공=5.18기념재단

5.18정신 '민중불교운동'으로 본격 태동

5.18항쟁, 불교에 미친 영향은

신군부 세력 요구 거절해
10.27법난 사태로 이어져
87년 6월 항쟁 적극 참여

불교계는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후방에서 지원했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은 중앙 교단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직접 광주에 방문해 천도법회를 봉행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월주 스님은 신군부 세력이 요구했던 자율정화 지침 수용과 전두환 장군 지지 표명 요구를 모두 거절했고, 그해 7월에는 어용불교단체였던 대한불교총연합회와 전한국불교회를 탈퇴했다.

이 같은 조계종의 행보는 신군부에게는 걸림돌로 보였고 10.27법난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1980년 10월 27일 국보위 산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노태우) 합동수사단은 새벽 4시를 기해 월주 스님 등 153명의 스님과 신도를 강제 연행하고 고문했다. 10월 30일에는 군경 합동으로 조계종 · 태고종 · 천태종 등 18개 종단 소속 사찰과 암자 등 5731개소를 일제 수색하고 1076명을 강제 연행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10.27법난은 국가권력에 기대왔던 호국불교 담론에 대한 반성과 교단 개혁 · 불교자주화를 촉구하는 1980년대 '민중불교운동'의 계기가 됐다. 1981년 초 진보적 불자들을 중심으로 '여래사운동(사원화운동)'이 전개됐으며,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모여 '청년불교도연합'을 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래사운동'은 그 해 10월 불교 사회운동으로 규정돼 150여 명이 연행되고 핵심인물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음으로 좌절하게 됐다.

하지만, 불교운동은 꾸준히 지속됐다. 1982년 대불련의 '한국불교 1600년 대회'가 시작됐으며, 1984년 지선 스님과 광주 불자들이 '무등민족문화회'를 창립했다.

특히 1985년 진관 스님, 성연 스님, 여익구, 고은, 최연 등 출 · 재가자 18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창립된 '민중불교연합(이하 민불련)'은 불교사회운동사의 한획을 그었다. 민불련은 창립총회부터 당국에게 불순단체로 지목돼 105명이 연행되며 출범했지만, 기관지 〈민중불교〉 · 회지 〈민중법당〉을 발행하며 불교계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 그러나 민불련 핵심인물들이 1986년 5월 인천사태 주모자로 주목돼 구속 · 수배되면서 민불련은 퇴조하게 된다.

민불련의 민중불교운동은 1986년 6월 스님 221명이 참여해 창립한 '정토구현전국승가회'로 맥이 계승됐다. 이는 그해 9월 7일 해인사에 열린 전국승려대회로 이어졌다. 2000여 명의 스님이 참여한 승려대회에서 스님들은 10.27법난 진상규명과 불교재산관리법 철폐, 부천서성고문사건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故박종철 열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1987년, 불교는 거리로 나섰다. 1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이후 '박종철을 살려내라'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는 국민들과 함께 최루가스 자욱한 거리에서 잿빛 승복 휘날리며 불퇴전의 기개로 시위를 벌이는 스님들이 등장했다. 이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6월항쟁에서도 불교계는 '민주화는 정토의 구현'을 외치며 항쟁에 적극 참여했다.

이처럼 5.18광주민주화운동과 10.27법난 이후 각성하기 시작한 스님과 불자들은 교단 개혁과 사회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통일 · 평화 · 환경운동으로 영역을 넓혔다.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결국 1980년 5월 광주가 불교계에 남긴 것은 '자리이타(自利利他)'라는 대승의 정신이다.

신성민 기자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천년의 빛을 품은
삼광사 연등문화제

4월 30일 ~ 5월 30일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국운융창 기원
- 봉축점등식 : 5월 16일 오후 7시
- 봉축법요식 : 5월 30일 오전 11시

프로그램
- 연등전시(4월 30일~5월 30일)
- 연등콘서트, 체험, 연등사진전, 먹거리장터(5월 28~30일)
※체험 : 템플스테이, 연등길트레킹, 지화만들기, 연꽃만들기, 연등만들기, 다도체험, 염주만들기, 도자기만들기, 관불, 전통놀이 등
- 예능대회(5월 24일 오후 1시 당일 현장 접수)
※대상 : 초·중·고
※참가부문 : 글짓기, 그리기, 댄스, 시회
※시상 : 주지스님상, 시장상, 시의장상, 교육감상, 구청장상
※공연 : 마술 및 비눗방울 쇼



■ 주최 : 대한불교천태종 삼광사 ■ 주관 : 대한불교천태종 삼광사 신도회 ■ 후원 : 부산진구청
대한불교천태종 삼광사 051)808-7111~5 http://www.samkwangsa.or.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43번길 77